

# 2014년도 IMF와의 연례경제협의 결과 조사 보고

2014. 10. 9  
사우디 주재원

- IMF는 금년 5월 중 실시한 사우디 정부와의 연례경제협의 결과 보고서를 지난 9.26자로 발표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서 사우디 정부가 정부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2015년에 사우디 정부재정의 적자 전환으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급격한 지출 증가세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 IMF는 그동안 사우디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지속, 인근 아랍 국가에 대한 대규모 원조 제공,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우디 정부의 재정이 2018년에 적자 전환되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사우디의 2015년도 재정 전망치를 종전의 GDP 대비 4.0% 흑자에서 4.4% 적자로 변경하였음.
- 또한, IMF는 2013년도 재정결산을 기준으로 2014~19년 중 비석유 부문의 재정적자를 비석유 부문 GDP의 3% 이내로 감축하는 경우에는 유가의 큰 폭의 하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사우디 정부는 현재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2014~18년 중 자본적 지출은 2012년의 GDP의 11%에서 크게 늘어난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사우디 정부지출은 “아랍의 봄” 이후 사회안정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가 늘어나,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52% 증가한 2,652억 달러에 달하였음.
- 사우디의 대외원조도 재정지출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2011년 1월 ~ 2014년 4월 중 인근 아랍국을 포함한 대외원조 약정금액이 227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집행금액은 109억 달러로 대 이집트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점을 반영할 때, 정부의 중앙은행(SAMA) 예치금은 2013~19년 중 55%까지 감소되고, 2019년에는 정부지출의 약 6.5개월분을 충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는 중앙은행 앞 정부예치금이 4,267억 달러(1조 6,000억 리얄)에서 2,391억 달러(8,965억 리얄)로 감소함을 의미
- IMF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우디 정부 앞으로 공공부문 재조정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 축소, 자본적 지출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민영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축소와 함께, 고급자산과 유희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정부 서비스의 유료화, 유가 인상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등을 권고하였음.
- 이밖에 사우디 경제 관련 주요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말 중앙은행 외화보유 순자산은 전년도의 7,167억 달러에서 7,685억 달러로 다소 증가함.
  - 재정지출의 증가를 감안한 균형재정에 필요한 배럴당 국제유가 수준은 2012년의 78달러에서 2013년에 89달러로 높아졌음.
  - 국제유가 수준은 2015년에 배럴당 101.6달러, 2019년에는 91.8달러로 전망